

빛과 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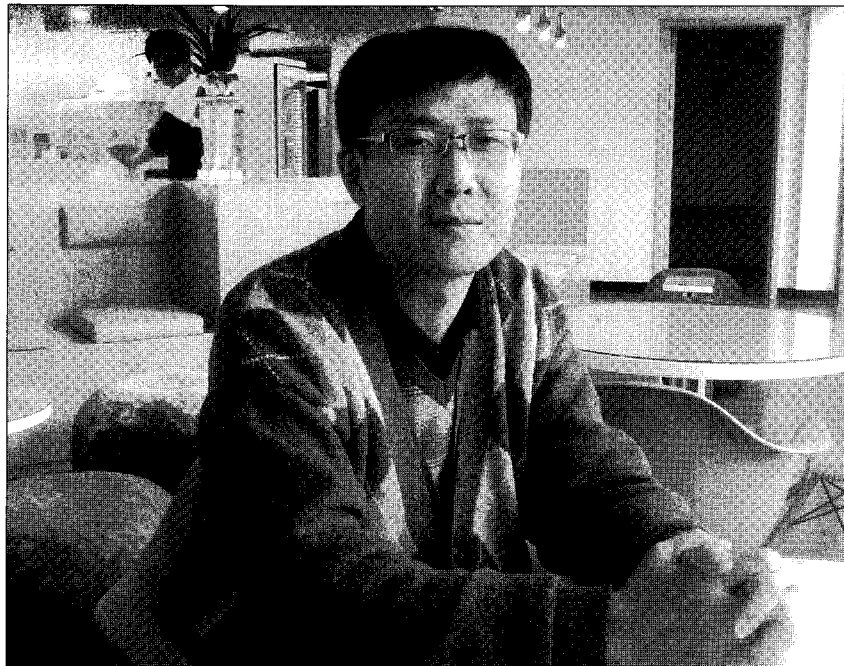
'시스템엔지니어'를 꿈꾸는 광학인

(주)이오시스템 생산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천 차장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광학설계와 응용광학을 전공하고 이오시스템에 입사하여 한 직장에서만 15년을 근무하여 얼마 전 있었던 이오시스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기근속상을 받았다.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시도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며 개인적으로나 회사 공적에도 많은 일조를 한 그 역시 올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룸도 생소한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목표를 향해 '사회인 박사과정'에 도전하는 박성천 차장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직접 인터뷰를 갖기 전, 기자가 오랜 기간 박성천 차장을 잠깐씩이지만 봐오며 느낀 인상은 뛰어난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통역을 담당하거나 자주 일본 연수를 접하며 선진실무능력을 쌓는 것에 적극적인 모습, 국내 세미나 및 광 관련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보습득 및 업무지원에도 열심하였던 모습들이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매사에 진지함으로 임하는 모습 등이 박성천 차장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돼 있었다.

박성천 차장이 지금의 회사에 입사한 것은 1993년. 대학과 대학원에서 물리·광학을 전공한데다 유창한 일본어·영어 실력을 겸비한 그가 입사 후 처음 배치를 받은 곳은 해외 수출영업팀. 6년 동안 해외수출영업팀을 담당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한 결과 스위스 라이카, 독일 GUS 등에 렌즈, 프리즘, 잠망경 등을 수출하며 회



▶ 2월 11일 이오시스템 사내 카페 오픈식에서 만난 박성천 차장

사가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까지 중심에서 그의 역할이 한몫했다.

또한 그는 사내에서 해외바이어 전문 통역사로 꼽힌다. 일의 특성상 외국과 교류하는 일들이 많고 그 과정에 의사소통은 필수다. 해외영업업무에서는 기본이거니와 연구소 및 생산현장에서도 그가 직접 나서 해외전문가 통역 활동 지원을 통해 현장 생산성 향상과 수주를 통한 회사 매출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왔다. 해외 바이어들의 내사 시 통역을 맡은 것만 줄잡아 100여회가 넘는다.

한편, 1999년부터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추진해온 한일 연수사업을 통해 10여회 넘게 일본 광학기술연수를 다녀와 비구면을 포함, 여러 선진 광학가공기술을 현업에 적극 활용하여 회사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큰 일조를 했다. 이를 테면 알루미늄(AI) 미러 연마기술 공정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보았고, 연수받은 내용을 통해 공정과정에 관한 교재도 제작하여 사내 기술서로 활용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사내 기술력 향상은 물론, 더 나아가 낙후된 국내 광학기술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실제 많은 해외연수경험과 그를 통해 형성된 인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사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과제를 획득하고 사업에 참여했으며, 한국광학기기협회 및 인하대학교의 대외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모든 노력들이 대부분 회사 및 산업발전에 밑거름으로 쓰였다면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도 많았다. 특히 군용 장비인 KM-20 쌍안경을 민수화로 개발 성공하여 민간 판매와 500여대를 일본으로 최초 수출하고 상표등록까지 하게 된 것은 가장 보람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결국 이 모든 결과들은 그가 가진 전문 광학기술과 유창한 어학실력이 한데 어우러져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전공 또한 물리와 광학이었고 한 직장에서만 15년 외길을 달려오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만도 한데 그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직장인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 법도 한 다른 직업에 대한 갈망 및 지금 일에 대한 후회를 묻는 질문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단호히 “노(No)”를 외친다. 어느덧 한 회사의 중견 사원이 된 그는 이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그동안에는 대내외 업무 지원 및 협력과 관련된 업무에



▶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사원 및 사원가족들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한마음 축제를 벌인 날 아버지와 함께 자리를 한 박성천 차장. 이날 그는 자랑스런 15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했다.

주력해왔는데 이제는 현장에 접근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회사에도 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한쪽 분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광학설계에서부터 가공, 연마, 평가 등 광학에 관련한 모든 공정을 포괄할 수 있는 ‘도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은 학업이라 판단한 그는 일본 큐슈대학의 ‘사회인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미 서류접수는 마치고 며칠 뒤에 있을(인터뷰 당시) 구두시험만 통과하면 4월부터 본격 학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인력양성에 적극적인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을 50% 받는 다지만 사회인 박사과정은 6년간 의무적으로 학업을 진행해야한다. 그 기간 동안 2달에 한번정도 열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큐슈대학에 체류하며 학업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나 회사에 있어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그러나 박성천 차장은 지금 당장 몇 년간은 힘들겠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본인의 역량 강화와 동시에 회사의 생산성 향상 및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뿌듯해진다고. 부인과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만큼 더욱 열심히 꿈을 향해 매진하겠다는 박성천 차장의 도전이 눈부시다.